

J프로젝트 '전남의 희망' 되려면... 3대 선결과제

- ① 진입도로 국비 지원
- ② 선분양 후개발 적용
- ③ 외국인 카지노 허용

정부의 잇단 서남해안관광단지 지정 기업도시(J프로젝트) 부양책 발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일시에 끝나지 않도록 진입도로 개선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들이 부지를 선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부담은 줄었지만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 조치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PC는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 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 이전의 원형지를 먼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콘도 회원 모집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 전에 땅을 분양해 자금을 일부 회수한 뒤 이 돈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개발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도 줄기차게 제기했던 요구다. J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카지노 설립을 조건으로 다는 외국 기업이 많았다. 미국의 카지노 거부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셀트 에틀슨 회장이 J프로젝트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가 카지노 설립이 힘들어지자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전남도가 유치한 중국계 기업들도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남도와 SPC는 오는 9월께 J프로젝트 4개 지구 중 처음으로 열리는 구성지구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구성지구 개발을 맡은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이재환 부장은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이 많기 때문에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 자체가 정부의 J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대 선결과제 풀고
특별법에 지원책 명시
대통령 기공식 참석도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영양 등 기업도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지시, J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들을 대상으로 개발을 막고 있는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대저(주) 등 참여 SPC는 ▲진입도로 개설 지원 ▲'선분양 후시공' 등을 포함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꼽고 있다.

먼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서호IC와 구성지구를 연결하는 J프로젝트 진입도로(10.9km)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J프로젝트의 입구 역할을 하게 되는 진입도로는 건설비용이 27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을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SPC들은 지난 6월 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기업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 이익을 배제한 땅값 산정 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간접적 매입과

정부의 부담은 줄었지만 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 조치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PC는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 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개발 이전의 원형지를 먼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콘도 회원 모집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 전에 땅을 분양해 자금을 일부 회수한 뒤 이 돈을 다시 투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개발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도 줄기차게 제기했던 요구다. J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카지노 설립을 조건으로 다는 외국 기업이 많았다. 미국의 카지노 거부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셀트 에틀슨 회장이 J프로젝트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가 카지노 설립이 힘들어지자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전남도가 유치한 중국계 기업들도 카지노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남도와 SPC는 오는 9월께 J프로젝트 4개 지구 중 처음으로 열리는 구성지구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구성지구 개발을 맡은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이재환 부장은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해외 기업이 많기 때문에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 자체가 정부의 J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다시 불 밝힌 여수박람회장 빅오쇼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여수세계박람회 빅오(Big-O)쇼가 13일 재개장해 300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물과 빛이 연출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사했다. 빅오쇼는 여수시 수정동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진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

녹지에 공장증설 허용... 포화상태 여수산단 숨통

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4~5조원 투자 이뤄질 듯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반색하고 있다.

기업들은 부지 포화상태로 애먹었던 공장 증설에 숨통이 트이는 만큼,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 조원대의 투자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이날 공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5월)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 및 지역이 부딪힌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사실상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민원을 풀어 준 셈. 관계 부처는 각종 규제에 맞닥뜨린 5건의 투자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여수산단 입주기업 등 7개 기업의 공장 증설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GS칼텍스와 한화케미칼, 여천NCC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

들은 수년 전부터 계획한 공장 증설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기존 석유화학공장 시설이 이미 포화에 이른 상황에서 2006년부터 증설을 계획했던 산단단지 내 쓸 수 있는 용지가 녹지밖에 없어 애를 태웠다"며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조만간 수조원대의 투자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도 "용지 부족으로 고생하던 차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2015년부터 2조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투자가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녹지 해제 비율 등은 전남도나 환경부와도 얽혀 있어 정부의 말 한마디에 당장 모든 것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수산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는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녹지 해제 비율이나 용지 위치 등 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투자계획은 최종 용역결과 등이 확정된 뒤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이 나온 뒤 7개 기업이 신청한 4~5조원의 투자가 모두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는

■ 정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여수 산단내 주요 수혜기업

GS칼텍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장 증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 수조원대 투자 방침

한화케미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2015~2018년 총 2조 원 을 투자해 석유화학부문 설비 증설

여천 NCC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에틸렌 생산시설 확장

물론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기록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박막형 전지 세계 최고 기술 보유 美태양전지업체 광주에 생산공장·연구소 짓는다

평동산단 외투지역에 2750억원 투자 9월 착공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박막형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 태양전지 업체가 광주에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짓는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외국인직접투자의 향을 밝혔던 기업이기도 하다. 특히 박막형 태양전지는 삼성 등

국내 대기업에서 수년째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지만 성공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차세대 신기술로, 이번 공장 설립에 따라 광주시가 태양전지산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솔로파워코

리아쥬와 CIGS(copper-indium-gallium-selenium)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위한 투자확약서(LOC)를 체결했다.

미국 솔로파워와 씨타이아(주)의 합작법인인 솔로파워코리아는 2억 5000만달러(한화 2750억원)를 투입해 오는 9월 광주 평동산단내 월전외 외국인투자지역에 제조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4월이

며,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생산인력 278명과 연구진단인력 30명 등 최소 308명이 일하게 된다. 관련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경우 신규 일자리만 수천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솔로파워사는 박막형 태양전지 선두기업으로 지난해 미국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로부터 세계최고기록인 발전효율 13.4%를 인증받았으며, 최근에는 16.4% 모듈을 완성해 테스트 중이다.

25년 품질보증이 기본인 솔로파워사의 박막형 태양전지는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두께는 100분의 1 수준이고, 무게는 1㎡당 2.4kg으로 5분의 1 정도 가벼운데다, 필름형태로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건물지붕 등 어느곳에나 설

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햇빛이 강해 효율이 90%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1세대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저렴하고, 시공설치도 간단하다는 점에서 국내 태양전지 시장을 빠르게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시장은 저가의 중국산 공세에 밀려 대기업들이 실리곤 결정형 태양전지 사업을 포기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박막형 전지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세계 최고의 태양전지 기술력이 광주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솔로파워코리아의 투자 성공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관광공사
Korea Travel Commission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나은 세 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 속으로 당신만의 여름특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만의 여름특집 이벤트
대한민국에는 참 다양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벤트1, 내가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 이벤트2,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름을 찍어라
출발 1시간 전 참여하면 무제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관망하세요 (2013. 6. 20. ~ 8. 31.)
summer.visitkorea.or.kr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참여 기관 : 인천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강원관광공사, 한국관광진흥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장경제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식산업개발조합,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나의 이야기를 담아갈게
마음이 맑게 채워지는 건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인가?
자작나무 숲에는 나의
특별한 여름이 있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